미국 보잉사는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에버릿 공장 현지에서 전 세계 취재진과 항공사 관계자 등 1만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항공기 '787 기종'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美 보잉사 '꿈의 항공기' B 787 첫 공개

미국 보잉사가 세계 항공 수송 역사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이끌어낸 '드림라이너(Dreamliner)'를 마침내 공개했다.

보잉사는 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에버릿 공장 현지에서 전 세계 취재진과 항공사 관계자 등 1만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94년부터 13년간 사운을 걸고 야심차게 개발해온 차세대 항공기 '787 기종(길이 56.7m, 날개폭 60m)'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꿈의 항공기'라는 이름이 붙은 787 기종의 이날 공개 장면은 전 세계 42개국의 방송과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기록도 수립했다.

정원 250명의 중형(中型) 여객기임에도 보잉측이 '드림라이너'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기체의 절반 이상을 기존의 알루미늄 대신 첨단 탄소 복합소재로 제작하고 고효율의 신형 엔진을 개발, 연료 효율을 무려 20%나 개선함으로써 고유가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형 항공기이기 때문이다.

'드림라이너'는 또 마하 0.85의 속도로 1만6천km(747점보 1만3천450km, A380 1만5천km)를 비행할 수 있고 부식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항공기의 최대 결함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던 낮은 기내 습도를 개선, 탈수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데다 이.착륙시의 소음과 유해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적 항공기를 실현했다.

787 기종은 또 장거리 운행시 고도를 현재 항공기들이 유지하는 2천400m에서 1천800m로 낮출 수 있어 피로감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창문을 기존보다 20% 이상 크게 하고 실내를 반원형으로 만들면서 천장에 LED 화면을 이용, 가상의 하늘이 연출되는 등 승객들의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시애틀=연합뉴스

대한항공 B787 10대 도입

2004년부터 B787기 설계·제작·납품 참여

2009년 南美·아프리카 등 신규 노선 투입

대한항공이 오는 2009년 '꿈의 항공기(Dreamliner)'로 이름붙여진 미국 보잉사의 차세대 항공기를 들여와 장거리 새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한다.

대한항공은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인근 애버릿에서 열린 보잉사 787기종의 첫 공개식에 참석한 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항공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첫 공개된 787기종 10대를 일찌감치 주문했다"며 "드림라이너로 이름붙여진 787기종과 에어버스 A380, 보잉 점보기 777-20ER과 300ER 등을 중심으로 한 장거리 항공기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1만6천km 비행이 가능한 드림라이너를 2009년부터 들여와 남미와 아프리카 등 장거리 신규 노선 개척에 적극 활용하고 A380과 B777-200/300 항공기는 북미와 유럽 등지의 주요 대도시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2010년부터 차세대 항공기 A380 5대를 도입하는 등 B787기가 들어오는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최신형 항공기 40대를 도입해 주력 기종을 차세대 기종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전략이다.

대한항공은 2004년 2월부터 B787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설계와 제작, 납품 과정에 참여했고 선진 항공기 제작업체도 이루기 힘들었던 후방동체와 날개 끝부위 등 6개 부분품에 대한 복합 신소재 가공을 성공시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협력업체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이라크 미군 철수하라" 美 여론 폭발

증강정책 불구 호전 기미 없어…부시 기로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라크 미군 증강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태 호전의 기미가 없는 가운데 이라크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폭발 수위로 치닫고 있다.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가 8일 1천700자에 달하는 장문의 사설을 통해 이라크 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오는 15일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이라크 사태 진전 보고서에서는 목표 미달이라는 평가가 담겨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NYT, 이라크 미군 철수 촉구=뉴욕타임스는 8일 '철군의 길(The Road Home)'이란 사설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충분한 명분도 없이 감행한 이라크 침공은 명백한 실패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증파전략 역시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면서 더 이상 미군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많은 미국민들처럼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사태로부터의 진지한 탈출전략을 마련하려 한다는 움직임을 보여주길 기다리며 결론을 미뤘으나 "부시는 놀랍게도 자신의 임기 중 이라크 미군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이 난제를 후임자에게까지 물려주려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민들은 이제 이라크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16만명에 달하는 이라크 미군과 엄청난 장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철수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군 증강 목표달성 실패=이라크 미군 증강 효과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예비 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왔으나 미 의회가 법률로 규정한 18개 목표들은 모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미군 증강을 통해 연내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오는 11월까지 누리 알-말리키 정부에게 이라크 전역의 치안권을 넘기겠다는 등의 목표를 제시했으며, 의회는 여기에 바트당 잔재 척결 법제화, 무장세력 해체 법규화 등을 더한 18개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철군 압력 고조, 부시 위기 심화=미국 내 이라크 철군 여론이 급속히 고조됨에 따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번 주 예정됐던 중남미 순방을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기로 했다.

이라크 사태가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내 철군 여론이 더욱 드높아짐에 따라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시 대통령에 대한 철군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2008년 3월까지 이라크 미군을 철수시키는 내용의 제안을 놓고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한미 FTA 연내 美 의회 비준 힘들 것"

뉴욕타임스 보도

한국과 미국 행정부가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이 연내에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새로운 통상정책에 합의한 지 불과 두달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놓으면서 한국,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와 합의한 FTA의 의회 비준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이 협정 상대국이 의회의 비준 전 노동, 환경 등에 대한 보호조항을 발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특히 이번 여름에 내정간섭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 페루와 파나마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 행정부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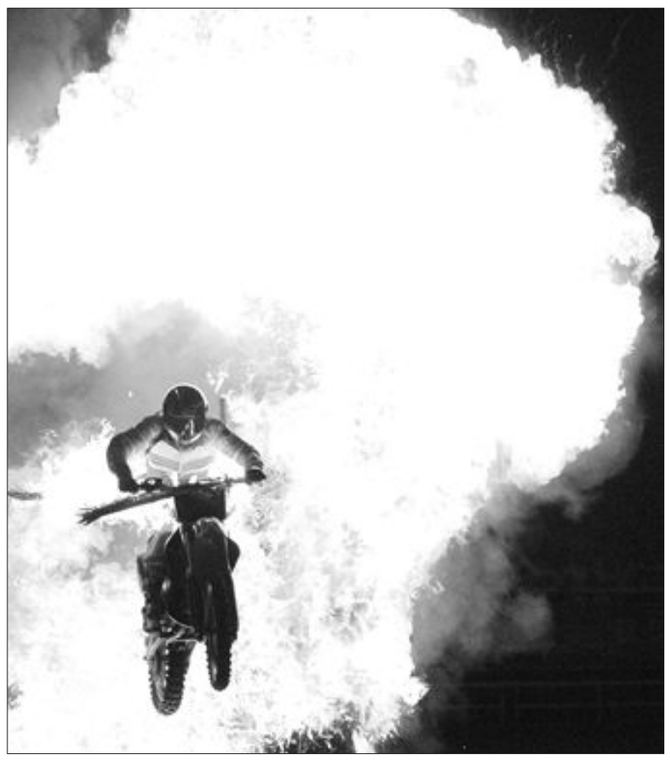
이와 관련,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6일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이 "우리의 무역대상국들에 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조건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대한 행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뉴욕=연합뉴스

美 중국산 완구 또 리콜

중국산 제품이 세계 곳곳에서 수난을 겪는 가운데 미국에서 또 다시 중국산 완구 3종에 대한 리콜처분이 내려져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비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장신구와 자석블럭 및 장난감 성(城) 등 중국산 장난감 3종류를 추가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장난감은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이 함유돼 있거나 부품이 작고 빠지기 쉬워 삼켰을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는 것들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화염을 뚫고 헐리우드 스턴트팀 '필름카' 소속의 한 스턴트맨이 8일 중국 저장성 타이조우에서 화염을 뚫고 나오는 오토바이 점프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외계 생명체 찾으려면 고정관념 버려라

외계 생명체는 너무 불가사의해 즉각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계인을 찾는 과학자들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생물체를 찾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 국립과학원(NAS)의 과학자들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방식이 물이나 탄소, DNA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구의 방식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물을 찾아라(follow the water)'라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현 접근법은 효율성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생명체'라는 접근법은 기존의 생명체와 다른 생명체들을 놓쳐버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이끈 워싱턴대학의 존 바로스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다른 행성들의 생명체를 '열린 마음'으로 추적함으로써 어떤 명확한 형태의 생명체와 다른 형태의 생명체를 놓치게 되는 우(遇)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로이터·AFP=연합뉴스